

민주당 대폭 인적 쇄신... '비명' 등 계파 두루 중용

당직 개편 단행... 지명직 최고위원에 '비명계' 송갑석 임명 김민석 정책위의장·한병도 전략위원장... 사무총장은 유입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에 '비명' (비이재명) 계 송갑석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김민석 의원을 임명하는 등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하지만 비명계에서 교체를 요구했던 조정식 사무총장이 유입되면서 이번 인적 쇄신에 당의 결집을 이끌 동력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요 당직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임선숙 전 최고위원이 사임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는 광주 재선인 송갑석 (서구 갑) 의원이,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3선의 김민석 의원이 임명됐다. 또 신임 전략기획위원장은 재선 한병도 의원이, 제3사무부총장인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은 초선의 박상혁 의원이 맡는다.

신임 수석대변인에는 재선 권철승 의원, 여성 대변인에는 초선 강선우 의원이 임명됐다. 기존 대변인단에서 박성준 의원과 한민수 대변인이 유입됐지만, '정답동 술자리 논란' 등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의겸 대변인은 교체됐다.

이번 인적 쇄신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로 깊어진 당 내홍을 추스르기 위해 이재명 대표가 꺼낸 '인적 쇄신안'이다.

당 대변인과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낸 송 의원은 이 대표 체제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서 비명계로 꼽힌다.

송 의원이 지도부에 진출함에 따라 광주 군 공화 이전 특별법은 물론 전남지역 의대 신설 등 21대 국회 막판 지역 현안을 챙기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친명계가 장악한 지도부에서 비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견제와 균형 추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임 정책위의장은 3선의 김민석 의원 (영등포 을) 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에는 재선의 김성주 의원 (전주 병) 의원이 임명됐다.

신임 전략기획위원장은 재선의 한병도 의원 (익산 을) 이 맡았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과 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제3사무부총장인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에는 초선의 박상혁 (김포 을) 의원이 임명됐다. 대변인단도 개편됐다. 안호영 수석대변인, 김의겸·임오경 대변인이 물러나고 기존 대변인단 중에는 박성준·한민수 대변인만 유입됐다.

신임 수석대변인에는 재선의 권철승 (화성 병) 의원이 임명됐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다.

박 대변인은 "안정, 통합, 탕평이라는 의미를 담은 인선"이라며 "이 대표는 인사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번 당직 개편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대규모 이탈표' 사태로 불거진 내용에 따른 수습책의 일환이라는 평가다. 이에 앞서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더미래) 등은 이 대표에게 전면적 인적쇄신 등을 수습책으로 요구해왔다.

이 대표는 통합과 탕평을 최우선에 두고 당직 인선을 고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의원과 김성주 의원은 정세균 전 총리와 가까운 'SK계' 인사로 분류됐다. 한병도 의원과 권철승 의원은 '친문' (친문재인) 으로 문재인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정책 포럼인 '사의재'에도 포함되고 있다.

지도부가 '친명 일색' 으로 구성됐다는 비판을 고려한 인선이라는 평가다.

이번 인선으로 이 대표의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김병욱·문진석·김남국 의원이 모두 교체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명계로 분류됐던 김성환 의원 역시 정책위의장에게서 물러났다.

다만, 공천 실무를 담당할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입되면서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수그러들 것인지가 미지수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번 당직 개편의 핵심으로 내년 총선 실무를 담당할 사무총장의 교체를 꼽아왔다. 또 송갑석 의원을 제외하고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의 당직 발탁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사무총장은 당의 균형 추 역할을 하는데 조 의원의 평가가 좋다"며 "5선으로 안정을 추구하면서 당 화합을 이를 책임자라는 평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산단·쇼핑몰·교통망 '정부 지원 패키지' 약속"

원희룡 국토부장관 인터뷰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28일 "광주 미래차 산단 조성을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고, 광주 복합쇼핑몰 입지에 따른 교통망 확충에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대통령 공약사업들이 정작 대통령 재임 기간에 샴을 뜨지 못하고 자기 정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제는 두 사업 모두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이라는 점에서 국토부 차원의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광주 방문의 의미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추진하는 여러 사업 중 윤 대통령의 공약과 맞아있는 핵심 사업에 대한 지원 약속을 하기 위해 광주에 왔다. 미래차 산단과 복합쇼핑몰, 교통망 확충 비전에 대한 정부 지원 패키지를 제시하기 위한 자리다.

이 가운데 미래차 산단은 인근 빛그린 산단 등과 연계해 광주가 세계 제일의 미래차 생산기지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뜻이다. 미래차 산단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 중앙부처, 광주시, 기업들이 원팀으로 가야 한다. 또한, 미래차 산업과 함께 윤 대통령의 공약사

미래차 관련 업체·연구기관 유치
송정역 KTX 투자 선도지구 조성
달빛내륙고속철도 특별법 진행
나주~대촌 등 교통망 획기적 개선
대통령 공약 임기 내 신속 추진

업인 복합쇼핑몰 유치를 통해 5성급 호텔, 대규모 레저시설 등이 광주에 들어온다면 광주의 경제 규모도 커지고 도시 기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강 시장이 추진중인 꼴찌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광주 미래차 산단과 교통 우우발사체 산단 지정에 대한 의미는.

▲광주의 자동차산업은 국내 두 번째 규모다. 규모도 크고, 지역 경제에 파급력 또한 크다. 그런데 부품 현지 생산이 안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번 광주 미래차 산단을 통해 미래자동차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만들고 유치하면서 연구기관 유치, 자율주행 실증 등의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내면 광주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미래차 생산거점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전남 고흥은 나로우주센터가 자리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항공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기점으로 관련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어야 한다.

-광주 미래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산단만으로는 부족하다. 살기 좋고, 인제와 자금이 풀려오는 광주 전체 발전을 위해 원도심 내 도심 융합 특구 특별법을 빨리 만들어 일자리, 주거, 여가 공간을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광주

시와 구체적 그림을 그려가겠다. 또한, 미래차 기업을 지원하는 주거·업무 기능 조성이 가능한 광주 송정역 KTX 투자 선도지구, 산학연 혁신 허브를 담당할 전남대 캠퍼스 혁신 파크 등 성장 거점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광주시가 오늘 요청한 7개 현안 사업에 대한 반영은 어떻게 되나.

▲강기정 광주시장의 광장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적극 검토가 아닌 적극 반영하겠다. 이 가운데 달빛내륙고속철도의 광주 도심 운행 선로 지하화와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 만큼 특별법이 제정되면 민간투자 등을 유치해 충분히 재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광주시와 협력해 반드시 현실화 시키겠다.

-광주의 광역·간선 교통망 확충도 약속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광주 복합쇼핑몰이 조성되면 인근 교통량이 증가하는 만큼 혼잡도로 개선 등 광주 도심의 교통인프라 구축을 국토부가 광주시와 원팀으로 추진하겠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대선공약인 만큼 국비로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따라서 빛그린대로~광천2교 시내 도로 확장사업과 금호동과 서광주, 광주 대촌~나주 금천 혼잡·광역도로 개선 등 광역·간선교통망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검수완박 현재결정 존중
검수원복 시행령 자제를"
김진표 의장 "여야, 대화·타협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법무부의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논란을 두고 "그렇게 안 하도록 법무부나 정부에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다만 여야가 (입법 절차나 내용에 대해) 대화와 타협, 양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는 "이런 법이 박근혜(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도했다가 안 된 경우가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가 돼서 결국은 죽어버린 법률을 똑같이 또 시도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유지한 것을 두고는 "현재 결정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판결(결정)이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선거제도 개편 방향으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방안을 선호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됐으면 이번 선거제 개편은 상당히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 OPEN

2023년 2월 1일,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36 교보빌딩 7층 | ☎ 062-521-0041

꿈을 보증하다 희망을 더하다 SGI서울보증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 건물 리모델링
- 칼라강판 지붕공사
-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 전원주택신축
- 공장신축
- 징크판넬시공
- 창호(샷시)교체
- 농막
-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